

전북도 '2017 을지연습' 시작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 도내 행정·공공기관 등 87개 기관 참가

전북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함께 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를 슬로건으로 도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경찰, 중점관리업체 등 87개 기관 1만5,000여명이 참가해 '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이번 을지연습은 21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실제 전쟁상황을 고려한 전시작전 편성, 행정기관 소산 이동, 전시장설기구편성, 장사정보 공격대비 주민대피 실제훈련 등 다양한 내용

으로 실시된다.

올해 을지연습은 도상연습과 전시현안과제 토의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대비계획에 대한 문제점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전쟁상황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등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실제훈련은 도지사 주재로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건물붕괴 및 화재발생에 따른 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민관군경 협조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2시부터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민방공 대피훈련도 전북 전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군차량 비상차로 확보와 군경 합동 교통통제 훈련과 읍면동장 주관으로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가까운 대피소 찾기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몸으로 체감하는 실제훈련도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를 비롯하여 모든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전시 개인 임무 교육, 전쟁수행 기구 창설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시작전편성 숙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습기간 중 도청 1층 내부에는 35사단과 7공수여단의 직 침투장비, 특전장비 및 안보관련 사진 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안보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계획이다.

을지연습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불시 도발 상황을 대비해 도, 시군 및 군경 등 유관기관과 단합해 실천에 임한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발유형에 대응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 및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18일 전북도청 1층에 있는 수유실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아이 엄마들이 찾고 있다. 사진은 수유실 안 모습이다.

엄마들 "수유실 부족" 한 목소리

도내 공공기관 중 62곳 불과... 공간 협소 등 시설도 열악

모유가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유 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유럽소아과학회도 모유 수유를 추천하고 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다.

이달 첫째 주(1~7일)는 WHO와 유니세프가 지정한 모유 수유 주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수유 여건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에 부족한 상태다. 지난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중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62곳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법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 엄마들은 수유실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의 한 공공기관 수유실은 입구가 밖에서 비치는 커튼으로 돼 있었다. 안에는 의료용 침대 1개와 1인용

소파가 전부였다. 공간이 협소해 아이를 안고 수유하기에 불편해 보였다.

이곳을 찾은 한 아이 엄마는 "수유실이 좁고 문이 설치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수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7개월 여아를 둔 장모(31·여·전주시 효자동)씨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지만 수유실이 쾌적한 곳이 많지 않다"라며 "어느 곳은 먼지가 쌓여있고 여름에는 더위 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이 많다. 청결한 곳이 없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설을 잘 갖춰 산모들이 자주 찾는 곳도 있다. 전북도청 수유실이다.

이곳은 침대, 정수기, 젖병소독기, 유축기, 아기침대 등을 갖추고 있다. 하루 평균 9명가량이 이용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 일환으로 수유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 위생에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이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 순조

정읍, 일평균 이용차량 86대

도내 최초로 정읍시 하모동 일원에 조성된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유료운영 5개월째 접어들면서 1일평균 이용차량 86대, 정기등록 차량 95대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간 야외운동기구 및 자동판매기 설치, 화단정비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보완하였으며,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PC업무 등 사무처리하는 물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됨에 따라 밤샘주차를 인한 도로변 및 주택단지 내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 질서를 확보하고 화물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정읍시 하모동 70-101번 일원에 면적 29,421㎡에 주차면수 178면(화물 118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운전자들을 위한 수면실, 세면실 등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용 화물차량 외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용요금은 2.5톤 초과 화물차 기준 일 3천원, 월 3만원, 연 32만4천원이다.

한편 정읍시는 화물공영차고지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8월 현재 정기등록 되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안전반사판과 졸음방지 경보기를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이 활발해져 도로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됐으며 화물운전자들의 쉼터공간으로서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국민안전 100일 분야별 특별대책 중간점검 회의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 100일 분야별 특별대책 중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후속조치 착수

도, 우수기업 세금 감면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속도

전북도가 지난 10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 일자리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이후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운영에 더욱 속도감을 내고 있다.

지난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정책조정회의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방안, 세법개정안,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등에 맞춰 도정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도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지방세 및 각종 사용자 부담

안, 도정의 각종 심사·평가 시 일자리 연관지표 반영방안, 각종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사업예산 우선 편성방안 등 이다. 또한, 정책조정회의 시 논의된 4대전략 17개 추진과제 별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9월 중에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태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도 일자리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고 토론회 시 제안된 도민과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책조정회의 시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의 모든 분야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만큼 전 실국이 합심해서 일자리 중심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도의 후속조치는 송하진 지사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16일 실·국장 회의 시 정부방향을 참고해 도정도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17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시에도 각 시·군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주문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양성평등 '구현' 도민 행복 '실현'

전북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사업 80여개 선정

전북도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80여개를 선정하고 분석평가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담당 관계자의 성인

지적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9월 중 사례중심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이숙이 과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17-1560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내지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익산시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령리 126-9, 126-28, 126-30
2. 분묘가수: 1기
3. 개장사유: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됨(공익사업)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5. 공고인: 익산시장
6. 신고처: 익산시 경영개발과(063-859-4528)
7. 개정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분묘 이장비 지급)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8. 개장(봉안)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제)평화원
9.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사항: 분묘 개장 공고 이후 동일사업장 내에서 공사진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및 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같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